



이창호 9단(왼쪽)이 14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54기 국수전 제4국에서 최철한 9단에 패배하면서 22년 만에 무관으로 전락한 뒤, 상기된 표정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세돌 9단(가운데)이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한국기원제공)

이창호 22년 만에 무관 전락

유일한 타이틀 국수전서 천적 최철한에 패

바둑계 “돌부처 이대로 몰락 하지 않을 것”

	최철한 9단	이창호 9단
제1국	1월 12일, 한국기원	136수 끝, 백 불계승
제2국	166수 끝, 백 불계승	1월 14일, 용산 중앙박물관
제3국	211수 끝, 흑 불계승	1월 25일, 한국기원
제4국	98수 끝, 백 불계승	2월 15일, 한국기원
제5국		
결과	3-1 국수타이틀 획득!	

‘돌부처’ 이창호가 22년 만에 무관(無冠)으로 떨어졌다.

국수타이틀 보유자인 이창호 9단은 14일 성동구 흥익동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54기 국수전 도전 5번기 제4국에서 도전자 최철한 9단에 흑으로 98수 만에 불계패했다.

올 1월12일의 1국에서 승리했지만 2국과 3국에서 연달아 패하며 막판에 몰린 이창호에게 이날 대국은 유일한 타이틀인 국수(國手) 방어가 걸린 결정적인 한판이었다.

배수의 진을 친 이창호는 최근 유행하는 중국식 포석을 들고 나왔다. 전투가 강한 상대를 의식해 처음부터 차분하게 실리를 벌어들이며 집에서 우위를 지켜나가는 작전을 펼쳤다.

최철한도 과상기를 중심으로 상반일대에 큰 세력을 형성해 나갔고 바둑은 전체적으로 두터운 백의 흐름으로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자 이창호는 하변에서 흘러나온 대마사냥에 승부를 걸었다. ‘기다림의 바둑’이라는 이창호가 최철한식 ‘을인 작전’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직선의 공격은 실패했고 이번이 파괴되는 큰 손해를 입은 이창호는 결국 돌을 던지고 말았다.

이로써 이창호는 국수전 종합전적 1-3으로 국수타이틀을 최철한에게 넘기며 첫 타이틀을 따낸 지 7831일 만에 무관으로 떨어졌다.

1989년 8월8일 14세의 나이에 제8기 KBS 바둑왕전에서 김수장 9단을 이기고 최연소로 첫 타이틀을 차지했던 이창호는 지난해 3월에 흥기표 4단을 물리치고 제54기 국수전을 따낸 때까지 총 140회 우승컵을 들어 올린 ‘한국바둑계의 살아있는 신화’였다.

세계대회 최연소 우승(16세-1992년), 세계대회 최다우승(23회), 연간 최다우승(95년·13회) 등 우승에 관한 각종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한 해 두자리수 우승을 5차례(93년, 95년~98년) 기록한 것은 전무후무한 대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창호가 무관으로 추락할 위기는 4년 전에 한차례 있었다. 2006년까지 4관왕이던 이창호는 2007년 들어 국수와 십단 타이틀을 잇달아 상실하고 6월에 왕

위전 도전기를 맞았다. 국수를 빼앗아간 윤준상과의 도전기가 2대2가 된 가운데 전자랜드배에서 강동운에게 패하며 무관 전락의 위기를 맞았다.

결국 전자랜드배 패배 이후 열린 왕위전 최종국에서 승리하며 기록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나 다시 맞은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천적인 최철한의 손에 의해 쓴맛을 보고 말았다.

하지만, 바둑계에서는 이번 추락이 이창호의 몰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강한 편이다.

국수전 해설자인 김승준 9단은 “혼자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이창호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신기하다. 이창호가 아니었다면 벌써 몰락했을 것”이라며 “현재 바둑계 풍토인 공동연구에 참가하고 체력을 끌어올린다면 앞으로 5년 이상 최정상급에서 활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3번째 국수전 우승을 차지한 최철한은 상금 4500만원을 손에 쥐었고 이창호는 1500만원을 받았다. /연합뉴스

‘승부조작 파문’ 이정수 복귀전서 金

전국동계체전 오늘 개막... 광주 115명·전남 170명 출전

동계 아시안게임(AG)의 열기를 이어갈 국내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 전국동계체전이 15일 시작된다.

제92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서울과 강원, 전북 등지에서 펼쳐지며 이번 대회에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선수단 3563명이 참가한다.

광주시는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스키와 빙상, 컬링, 바이애슬론 등 4개 종목에 총 115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전남은 5개 종목(빙상 피겨, 스피드 불참)에 170명의 선수단을 출전시킨다.

광주시는 이미 양현수(총장중 2)가 사전

경기로 열린 피겨 스케이팅 종목에서 지난 8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은 15일 바이애슬론 개인경기(20km)의 이인복(보성)과 개인경기(15km) 문지희(진도) 등에게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6일 끝난 카자흐스탄 알마티·아스타나 동계아시안게임의 스타들이 대거 출전한다.

알파인 슈퍼대회전과 활강 금메달리스트 김선주와 슈퍼컴바인드 우승자 정동현, 크로스컨트리 프리에서 정상에 오른 이채원이 스키 종목에서 아시아 정상급 기량을 과시할 전망이다.

또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쇼트트랙 종합 1위에 오른 국가대표 선수들은 월드컵 대회 출전으로 불참하지만 승부조작 파문으로 선수자격이 정지됐던 쇼트트랙 스타 이정수와 박윤기가 복귀했다. 이정수(22·단국대·충남)는 14일 강원도 춘천 의암빙상장에서 벌어진 쇼트트랙 남자 대학부 1500m 결승에서 2분23초10으로 우승해 여전한 실력을 과시했다.

한편, 같은 기간 제8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도 서울과 춘천, 창원 등지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이번 장애인동계체전에 3개 종목(빙상, 휠체어 컬링, 스키) 35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전남도 3개 종목에 42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임동홍기자 exian@kwangju.co.kr



14일 천안 국민은행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여자프로농구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에서 국민은행 박선영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예슬·김나영 금메치기

2011유도월드컵

2010 광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황예슬(안산시청)이 2011 유력유도연맹(EJU) 오베르바르트 월드컵에서 5경기 연속 한판승으로 우승했다.

김나영(대전서구청)도 금메달을 추가하며 ‘금빛 행진’에 동참했다.

황예슬은 13일(한국시간) 오후 오스트리아 오베르바르트에서 끝난 대회 여자 70kg급 결승에서 브라질의 마리아 포르텔라를 한판으로 넘어뜨리고 우승했다. 1회전에서 지울리아 칸토니(이탈리아)를 한판으로 제친 황예슬은 2회전에서도 델 아사니아 델 아자르(모로코)를 한판승으로 누르고 8강에 나섰다.

또 최정량급인 78kg 이상급에 출전한 김나영은 결승에서 2010 광주 아시안게임 무제한급 동메달리스트 다치모토 메구미(일본)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반면 78kg 이하 급에 나선 정경미(하이원)는 동메달 결정전에서 야마하 라미레스(포르투갈)에 패해 공동 5위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5시즌 연속 정규리그 우승

2010-2011 여자프로농구

안산 신한은행이 여자프로농구 5시즌 연속 정규리그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신한은행은 14일 천안 KB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삼성생명 2010-2011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청주 국민은행과 원정 경기에서 67-62로 이겼다.

26승3패가 된 신한은행은 2위 용인 삼성생명(20승9패)이 남은 6경기에서 다 이겨도 26승에 그치게 돼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지었다.

신한은행은 삼성생명과 이번 시즌 상대 전적에서 5승1패로 앞서고 있어 동률이 돼 도승자승 원칙에서 정규리그 1위에 오른다.

국내 주요 프로스포츠인 야구, 축구, 농구, 배구를 통틀어 5시즌 연속 정규리그 우승은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신한은행은 2007년 겨울리그부터 2007-

2008, 2008-2009, 2009-2010시즌과 이번 시즌까지 최근 5년간 여자농구 정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전반을 33-36으로 뒤진 신한은행은 1점 뒤진 가운데 시작한 4쿼터 초반 하은주의 골밑슛으로 전세를 뒤집으며 4쿼터 내내 국민은행과 역전을 거듭하는 접전을 벌였다.

승부의 무게가 신한은행으로 기울 것은 경기 종료 2분 정도를 남기고부터였다. 하은주의 자유투 1개로 61-61, 동점을 만든 신한은행은 전주원의 속공과 하은주의 골밑슛이 연달아 터져 경기 종료 1분35초 전에는 65-61로 달아났다.

국민은행은 종료 52초 전 강아정이 자유투 2개를 얻었으나 2구체를 놓쳤고 3점 뒤진 상황에서 공격권을 다시 잡아 김영옥, 강아정이 연속 3점슛을 던졌지만 모두 빛나기 못해서 신한은행의 우승 잔치를 지켜봐야 했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聯 새 사무총장에 안기현



안기현(57·사진) 전 수원 삼성 단장이 공식적으로 원년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정몽규)의 새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다.

프로축구연맹은 14일 “안기현 전 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안 내정자는 1982년 포항제철 축구단의 주부로 출발, 1995년부터 수원 삼성 사무국장을 거쳐 2004년 수원 단장으로 승진한 ‘행정 전문가’ 축구인이다. /연합뉴스

<h3>금당 공인중개사</h3> <p>■ 감정가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산구 신촌동 주거지 2160평 공사지가 5억 매도 3억3천 화정동 3번지 부근 4차선도로 342평 공사지가 매도 9억 산동동 상업지 310(94) 공사지 3억천 매도 2억2천 동구 6차선 도로와 3차선도로로 나뉘는 상업지 589평 건평은 637평 공사지가 127억천 매도 23억5천 북구청 부근 대지 207 건평 420 공사지가 17억 매도 9억 대안동 대지 149 건평 438 공사지가 6억9천 매도 8억7천 화순읍 심한리 주거지 587평 공사지 3억4천 매도 2억9천 금남동 4번지 대지 111 건평 300 2억2천 공사지가 매도 4억9천 목포시 노오양사실 하가리 대지 1054건평 10층 2149평 건평 57억9천 원 100% 전환 40억 송정동 금호아파트 부근 5877평 공사지가 2억5천 매도 2억5천 북구 아파트지 목욕탕, 골프연습장 대지 440 건평 507 공사지가 9억7천 전세 2억5천 월세 630만 원 13억 월산동 주택 대지 47 부근 6개 공사지가 5140만 원 매도 4100만 원 광주역안 원동 대지 108 건평 383 건평 1억9천 매도 6억7천 <p>■ 매도·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구 신정동 영성종합단지 잡종지 840평 남천 전원생활, 사철철합, 동호주택 3억5천만 원 무암동 4차선도로 195평 교회, 병원, 학원 등 7억2천 화정동 4번지 6차선 도로변 주거지 480평 매도 16억 쌍촌동 2층 주거지 738평 교회, 원룸, 생활주택 13억5천 화순군 능주면 소재지 주택 대지 100평 수리해 1월, 1900만 원 화순군 동면 서성리 발전촌 250평 경관주택 1억7500 남평읍 교원리 비스도리집 211평 주택과 공영지 5억 1억8천 8백 전원주택지 화순 남면 사림리 233평 경관주택, 4천만 원 산수동 호남맨션 2층 주거지 200평 사철합 주택 매도 2억2천 하남동 도천동 자연지 506평 공장주택 3억9천 <p>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가 1층)</p>	<h3>현대공인중개사</h3> <h4>토지 급 매매</h4> <p>▶ 서구 마름동, 생산녹지, 3002㎡(908평), 매매가 15억 원 대 출 농협 7억 김대중컨벤션 인근, 교회, 식당, 창고 공장 용도 다양</p> <h4>광산구 토지 매매</h4> <p>▶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8,725평), 토지 전체면적 중 15,818㎡(4,784평) 전용 되어 있음, 건축물 637.46㎡(192.83평), 현재 셀 매장, 적합한 용도 : 기도원 수련원 공장 창고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 매매가 협의 후 결정</p> <p>▶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2차선도로에 접, 21914㎡(6,629평) 매매가 12억</p> <h4>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h4> <p>광산구 우산동, 대지 321㎡(97평) 건물 지하 1층 지상 6층 1326㎡(401평) 임대 내용 : 보증금 2억 1천 5백만 원 월 7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아파트 2,300세대 인근, 대출 3억원, 매매가 12억 원</p> <p>■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된 물건임 ■</p> <p>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p>	<h3>호남랜드공인중개사</h3> <p>상무지구 시청앞 내공주광주전남지사별 유지발달 501</p> <h4>준공된 태양광발전소 구함.</h4> <p>용량 100 ~ 1,000KW.</p> <h4>무등산 전원주택지</h4> <p>북구 회암동 대지 433㎡(131평), 전, 일, 1,994㎡(603평) 구 주택 2동, 매매가 1억 6,000만 원, 조망 경관 양호.</p> <h4>쌍촌동 2차선도로 내대지</h4> <p>서구 쌍촌동 2차선도로 내 대지 513㎡(155평), 제2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3.3㎡당 235만 원, 캔넨, 식당, 업무용빌딩 적합.</p> <h4>쌍촌동 내대지</h4> <p>서구 쌍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관사 2,992㎡(905평) 제 1종일반주거지역, 10m 진입로, 매매가 상당함, 도시형 생활주택, 종교시설, 요양원지, 일부 분할 가능.</p> <h4>상무지구 내대지(업무용지)</h4> <p>상무지구 시청앞 부근 20m 도로 접합, 993㎡(300평), 매매가 18억, 회사사옥, 업무용빌딩.</p> <h4>첨단 보훈병원원 자연녹지</h4> <p>광산구 신월동 보훈병원 앞 9,722㎡(2,941평) 3.3㎡당 58만 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전원주택, 요양원, 시설, 기타.</p> <h4>건물매매(용봉지구)</h4> <p>신안동 용봉지구 옆 대지 367㎡(111평), 3층, 연면적 598.8(181평) 매매가 7억 5천, 보증금 6,000만 원 월 330만 원 근린생활시설 임업.</p> <h4>서광구역 뒷 자연녹지</h4> <p>면적 3,835㎡(1160평), 4m, 진입로, 매매가 3.3㎡당 65만 원, 현재 임야.</p> <p>010-3616-8698, 062-233-2222</p>	<h3>토지 매매</h3> <p>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p>▶ 광주 ~ 무안 고속도로(나주 I.C 입구)</p> <p>▶ 광주에서 8분거리</p> <h3>길잡이공인중개사</h3> <p>• 상표등록 : 41-0163369호 •</p> <p>☎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법 공원사거리)</p>	<h3>대인동삼일부동산</h3> <p>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p> <p>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p> <p>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p> <p>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 (FAX) 223-1772 ☎ 011-602-2532 (광주중앙 신문빌딩, 대인동 소정사거리-2번)</p>	<h3>애플지식센터</h3> <p>사무실·연구소 분양 및 임대 <R&D특구></p> <p>정부중합청사 옆(첨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층 복층구조 ▶ 전용 32평, 총 64세대 ▶ 각종 시스템 냉방방기 설치 ▶ 편정업종 노무사, 관세사, 기업부설연구소, 컴퓨터개발업, 건축설계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 디자인사무실, 종합건축사무실 <h3>기타 업종은 상담 즉시 입주 결정</h3> <p>▶ 성황리 입주중 ▶</p> <p>공동중개 환영!!</p> <p>010-2441-1610</p>	<h3>금산공인중개사</h3> <p>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p> <p>■ 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재개발예정 (4면 광로변)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 1,300만 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희가능 <h3>장점</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재개발 예정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운대 5·18 광로변) ⑤ 상무신도심 중심 상업, 행정구 ※ 10층 신축건물임 코너 <p>H.P.011-601-5354</p>
--	--	--	---	---	---	--